‘청년에 희망을’ 문경명상마을서 힐링캠프

10월 28~30일 성황리에 열려

100여 청년 참가, 명상-요가 등
마가 스님 자존감 상승 수행 강연
각산 스님 호흡명상 실참 지도도
신현국 문경시장도 정치역정 고뇌
청년들에게 털어놓고 격려 메시지

문경=노덕현 기자


문경세계명상마을은 10월 28~30일 청년캠프를 진행했다.

삶에 지친 청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청년명상힐링캠프가 문경 희양산 자락에서 열렸다.

문경세계명상마을(선원장 각산)은 10월 28~30일 ‘청년이여 비상하라’는 주제로 청년명상힐링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힐링캠프에는 100명의 청년들이 참가했다. 첫날인 28일 서로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풀어주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캠프의 막이 올랐다. 한국참선지도자협회 공동회장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과 비베카 킴 인도 비베카난다요가대 한국지부 대표의 요가 체험, 한국참선지도자협회 공동회장이자 세계명상마을 선원장인 각산 스님의 명상지도, 청춘토크 등이 진행됐다.

청년들에게 호흡명상을 지도한 선원장 각산 스님은 “프랑스 떼제공동체, 플럼빌리지 등에서는 수행, 명상을 통한 내면의 재발견을 할 수 있다. 문경 세계명상마을에서도 청년들이 사자처럼 당당한 내면의 모습을 발견하고 마음을 치유, 자유를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초청강연을 진행한 마가 스님도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어려운 일을 떠올리면 현재 상황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며 “오늘 문경에 오는 고속도로에서 대형사고가 난 것을 보았다. 사고현장을 보며 살아있음, 건강함에 감사함을 느꼈다. 평소에 호흡에 집중하는 습관을 갖고 그 순간의 집중으로 건강함을 느끼며 마음속의 행복을 느끼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연에서는 함성 지르기와 함께, 마주보고 서로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을 담은 절을 하고, 칭찬의 덕담을 전하는 등 유대관계 속에 마음을 치유하는 자리가 형성됐다. 다소 서먹했던 분위기도 대화를 통해 사라지고, 매 강연마다 참여열기는 높아졌다.

첫날 저녁 8시경 팀토크 전에는 신현국 문경시장도 캠프 현장을 찾아 청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경험담을 털어놨다.

신 시장은 “7번의 지자체장 선거에서 4번을 낙선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고통을 겪었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최악의 경우인 ‘죽음’과 비교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기 때문”이라며 “너무나 힘든 상황이 닥치면 그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턱하고 손을 놓길 바란다. 엉덩방아를 찧어도 괜찮더라”며 힘을 불어넣었다.

이날 참석한 청년들은 종교를 떠나 마음 치유, 자아 발견의 장이 열린 것에 기뻐했다. 이번 캠프에 참가하기 전 청년들은 내면 탐색과 마음 수행법 등에 대한 참여동기를 미리 밝힌 바 있다.

가톨릭 신자인 강정인 씨(35)는 “숨겨진 자아를 찾고 스스로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캠프를 찾았다”며 “평소 관심이 높았던 명상과 요가 등을 배울 수 있어 즐거웠다”고 말했다.

시흥에서 온 김다현 씨(22)도 “불교명상을 떠나서 마음을 수련하고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계기였다”며 “낯선 친구들을 공통된 관심사에서 만나 대화도 나누고 상담도 받으며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불자는 아니지만 위빠사나 수행을 하고 있다는 이동경 씨(28)는 “여러가지 명상과 불교수행에 대해 잘 모르는 청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며 “문경 명상마을이라는 공간이 주는 치유의 힘도 있다. 많은 이들이 명상마을을 찾아 치유의 힘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둘째 날인 29일에는 행불선원장 월호스님의 강연과 채희걸 세계선무도총연맹이사의 선무도 교육, 종소리 명상체험과 숲속걷기명상, 밤하늘별보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세계명상마을 선원장 각산 스님은 “명상이 세계 지도자들 사이에서 내면 수행법으로 각광받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고, 스스로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을 주기 때문”이라며 “명상을 통해 청년들을 비롯한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이어 명상의 근본인 불교가르침에 담긴 사상이 널리 퍼져나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갈등 사회 해결은 풍요 아닌 평등”

화쟁위, 11월 1일 ‘화쟁의 힘’ 집담회



“갈등과 대립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은 풍요가 아닌 평등에서 나옵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호성 스님)가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는 화쟁의 힘’을 주제로 11월 1일 서울 전법회관에서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사진〉은 ‘화목한 사회는 가능하다’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불평등이 없으면 혐오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담회는 사회 곳곳에 만연한 갈등과 대립에 불교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집담회에서 김 소장은 먼저 차별과 혐오의 정의와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사회적 혐오는 강자들의 감정임을 강조한 김 소장은 “불평등이 없으면 혐오 감정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문제는 극소수의 독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에 따르면 상위 1%의 부자가 재산이 나머지 99%가 가진 재산의 2배가 넘는다. 세계 최상위 부자 2000여 명이 가진 재산이 세계 인구의 60%인 49억 명의 재산보다 많다.

김 소장은 “화목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단결과 협력이 중요하며 개인의 생존을 국가(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가 형성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회복하고 연대의식을 함양해야한다”면서 “사회적 과제로는 다층적 위계 사회에서 평등 사회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화쟁위원인 황도근 상지대 한방의료공학과 교수는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에서 우선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강조했다. 화쟁을 통해 해결한다는 생각보다 애정과 위로가 먼저임을 강조한 황 교수는 ‘교육’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황 교수는 “갈등의 근본 원인이 인간의 욕망과 구조적 욕심에서 온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교육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분별과 욕망의 마음을 본인이 알아차림해서 개개인의 삶과 생각이 바뀌어야 대전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세대에게 교육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담회에 앞서 중앙승가대 교수 금강 스님 “화쟁위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불교적 관점을 잘 정리했을 때, 불자들이 관점을 갖고 보살행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 “사회적 의제에 대한 방향을 제시, 불자들이 불교적 관점에서 입장을 잘 정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종교가 사회 책임…행복공동체 만들자”

불교 등 3대 종교, 11월 3일 사회적경제 문화축제

조계종 총무원 사업부와 사람과사회적경제는 11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2022자비와나눔행 사회적경제 문화축제’를 개최했다.〈사진〉



당초 이날 행사는 불교와 가톨릭, 개신교 등 종교계의 사회적경제 기업 성과를 공유하고 일선 사업 활성화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지만,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추모행사 성격으로 변경, 진행됐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태원 참사로 생을 달리한 영가 앞에 추모의 국화 한 송이를 올린다”며 “다함께 추모의 시간을 갖고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하자”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우리 사회는 경제 발전과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경제 실현을 통해 상생을 위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자비와 나눔’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대 종교는 ‘경제위기 극복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종교계 공동선언’을 통해 “자비와 나눔, 사랑의 정신을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가치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행사 중에는 사회 공동선 실천을 위해 앞장서는 우수단체와 지도자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불교에서는 ‘지구사랑작은실천사회적협동조합’ 상임이사 혜눌 스님이 종교최고지도자상을 수상했으며, 개신교에서는 한국교회언론협동조합 상임이사 박진석 목사가 상을 받았다.

노덕현 기자

천태종 · 나누며하나되기, 임진각서 통일문화제 성료

10월 28일, ‘개성, 문 두드리다’
지관차법 시연 · 천태차 들차회
가수 변진섭 · 성악그룹 공연도



천태종은 10월 28일 임진각에서 통일문화제를 개최했다.

통일 안보관장지인 파주 임진각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문화제’가 열렸다.

천태종(총무원장 무원)과 (사)나누며하나되기는 10월 28일 임진각 망배단 및 팔각정에서 ‘개성, 문(門)을 두드리다’를 주제로 통일문화제를 개최했다.

총무원장 무원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 가슴에서 용솟음치는 민족통일의 열망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힘의 논리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상처를 씻어주는 상생과 공존의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오늘 통일문화제는 민족통일을 향한 불자들의 소원이 부단한 정진으로 승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시절인연이 어려울수록 굽힘없이 나아가는 대승 보살의 원력으로 통일의 대업을 성취하는 새로운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지관차법 시연 △2부 임진각 통일 문화제-개성, 문을 두드리다 등으로 진행됐다.

먼저 ‘지관차법 시연’은 한국 천태종을 개창한 대각국사 의천(大覺國師 義天, 1055~1101) 스님의 열반 921주기를 추모하며 서울 관문사 다도회 회원들이 한국 전통 선차를 계승하고 중흥하고자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지관차법을 시연했다.

통일문화제는 성의신 마하연실내국악단장의 해금 연주로 막이 올랐다. 성악그룹 칸투스와 가수 변진섭의 열창은 가을밤 임진각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퍼뜨렸다. 이어 전 출연진들이 ‘우리의 소원 통일’을 합창하며 이날 통일문화제는 막을 내렸다.

행사에 앞서 식전행사로 ‘개성 사진전’과 ‘천태차 들차회’가 열렸다. ‘개성 사진전’에는 남 · 북이 처음으로 힘을 모아 복원한 개성 영통사 복원사업의 진행 과정과 개성 일대의 문화유적을 담은 사진 120여 점이 전시됐다. 또 서울 관문사 · 서울 삼룡사 · 군포 상락사 다도회가 참여하는 ‘천태차 들차회’가 진행돼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다양한 차를 제공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法華經專門講說
법화경전문강설

불경(佛經)은 한문(漢文)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불경의 한자(漢字)와 한문의 뜻을 비유하면 음악의 악보와 같습니다.
경전의 한자원리와 한문구성문법도 모르면서 불교를 말하는 것은 악보도 볼 줄 모르면서 음악을 지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어떻게 수행을 해서 성불하셨는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NAVER 법화경전문강설 검색 하세요.

킹스대학교 前명예총장 최광영연구실